

##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 실현에 관한 제언\*

김혜영\*\* · 유지현\*\*\* · 이숙정\*\*\*\*

### — | 목 차 | —

- |                            |                          |
|----------------------------|--------------------------|
| I. 서 론                     | IV.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의 준비 |
| II. 대학을 향한 핵심역량 강화 요구      | V. 결 론                   |
| III. 국내 대학의 핵심역량 도입 및 활용현황 |                          |

### 국문초록

대학을 향한 핵심역량강화에 대한 요구는 수년째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교수들은 여전히 역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역량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역량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이 핵심역량강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핵심역량을 직업과 직무에 관련된 능력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일상적인 힘이나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일반화하여 접근할 수 있기를 제언하였다. 즉 역량이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기에 때문에 대학에서 이 역량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교양교육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 본 연구는 2021년 1월 22일 단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hyeyoung@sm.ac.kr

\*\*\* 선문대학교 교수, edupsy0502@sunmoon.ac.kr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leesjeong@sm.ac.kr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핵심역량과 교육영역, 특히 교양교육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는 교수와 대학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대학들의 핵심역량을 교육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더 나아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즉, 핵심역량기반의 교양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 운영에 있어서 작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핵심역량, 교양교육과정, 역량기반 교육, 대학 역량교육 현황, 핵심역량연계 전략

## I. 서 론

대학에서의 역량교육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는 가운데, 역량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기조는 몇 년 전보다 더 뚜렷해졌다. 교육부의 방향이 무조건 옳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고등교육 생태계를 고려할 때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대학은 충분히 응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이 핵심역량 강화라는 측면의 교육적 의무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시장가치적 교육내용에 대해 우려한다.<sup>1)</sup> 그리고 역량중심의 교육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을 통해 교육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sup>2)</sup> 그러나 아직 역량교육의 효과로 뚜렷하게 무엇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

1) 허영주, 「NCS 직업기초능력의 교양교육과정 도입 전략 탐색」, 『교양교육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425~462쪽.

2) 손민호·조현영, 「탈기능주의 교육과정 모형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메타포: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대안적 설계」, 『교육과정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2016, 141~160쪽.

는 자료도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무조건 역량교육이 필요하고 좋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핵심역량을 받아들일지 배제해야 하는지 등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니다. 대학에서의 역량교육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를 살피면서 대학이 핵심역량강화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계획이 있는 대학이라면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즉, 대학, 교수가 대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교양교육과정 측면에서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역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영해왔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교양교육이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범위이다. 가장 먼저 대학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 II. 대학을 향한 핵심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 1. 교육수요자의 기대

대학재학생 수는 1980년 41만 명이다가, 3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2년을 기점으로 5배 이상인 220만 명이 넘었다.<sup>3)</sup>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정원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재학생 수가 줄어들었지만,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과 관심은 전혀 식지 않았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대학에 반드시 보내려 하고, 그 중에서도 최대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그러한 욕구에 대해 솔직해진 채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

3) 교육부, 『기초통계』, 2019.

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이었던 대학교육이 현재는 보편화되었다고 하였다.<sup>4)</sup> 그래서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신입생들의 특성이 다양해졌고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신입생의 대학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대학에서 자녀가 학문만을 탐구하기 바란다고 볼 수 있을까? 학문탐구 이외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나 미래를 찾는 데 대학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학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닐까?

학업과 사회생활 그리고 일상에서 핵심역량이라는 것은 늘 필요했다.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의사소통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해결역량이 부족하여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경우도 있었다. 또는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힘겨웠거나, 부족한 시간, 자본, 인적자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 또는 힘이 늘 필요했는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즉, 역량이 단순히 직업생활을 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힘을 의미하는 정의로써 ‘삶을 살아가는 법’에 가깝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역량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다.

## 2. 사회의 기대

일반적인 기업들에게서 대학졸업 신입사원들의 현장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대학졸업 신입사원의 1인당 재교육비용은 5,659만원이었고, 재교육기간은 18.3개월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신입사원 창의력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48%가 대학에서의 창의성교육이 그저 그렇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했다.<sup>5)</sup> 즉, 대학은 기본

4)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5) 김왕동, 「이젠 대학교육의 창의성이다!: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

적인 업무에 대한 능력 뿐 아니라 창의성에 대해서도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개별 경제주체들은 대학이라는 공급자에게 실제로 채용 후에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해왔다. 즉 대학의 교육을 통해 사회에 조직에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를 배출해주기를 바랬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와 요구에 대한 근거로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들은 채용시점부터 지원자의 현장능력을 중요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기초역량 및 전공역량 측면에서 역량중심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졸업자들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역량중심(능력중심)의 채용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크게 와 닿는 문제일 수 있다.

더욱이 실제로 인공지능기반의 인사관리(HR: Human Resource)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지면서 성과역량기반의 채용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학력, 스펙 등의 외부 요소가 아닌 본질적으로 보유한 기본역량이 조직의 문화와 직무에 성과를 내는데 얼마나 적합한지가 선발기준이 되어 역량 성장상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sup>6)</sup> 뿐만 아니라, 현재 인공지능기반 역량채용은 국민은행, 신세계 등 190여개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졸업자의 실질적인 역량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은 그러한 속도와 요구에 맞게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면서 발전해왔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까?], 『Future Horizon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6) 중앙일보, 보도자료, 2020.01.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5&aid=0002966636>.

### 3. 교육부의 기대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향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대학의 기본 운영능력과 체계 등을 발전계획, 교육과정, 강의, 학사제도, 비교과, 수요자만족도 관리 등의 지표를 평가하고, 대학의 교육수준과 능력을 ‘역량기반의 교육과정’ 운영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sup>7)</sup> 즉,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에서 대학이 설정한 인재상에 맞는 역량을 어느 정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추진하느냐를 확인하는 평가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인재상과 역량을 면밀하게 연결하여 해당 역량을 교과와 비교과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키워주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대학의 운영체제를 정의하고자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1주기, 2주기를 거치고, 3주기의 실적을 완료한 지금의 시점에서 각 대학은 대학이 정하는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면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수준에 있어서 타의적이지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체적 성숙을 이루었다.

### 4. 대학의 역할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학생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한 경쟁 시스템에 갇혀 지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학문탐구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까지 대학에 온 이유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솔직하게 다가간다면 조금 다른 접근도 가능하다. 즉,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학이 하고 싶은 것, 대학이 설정한 목표만 고집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각각의 목적이나 요구를 외면한 채 입시에 지친 학생들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대학이 하고 싶은 데로, 주고 싶은 것만 주고 있지는 않

7)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2017.

은지 우리가 반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것,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한 힘을 역량이라고 여기고 이를 강화시켜주는데 힘을 쏟을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대학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기꺼이 그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의 역할도 하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할을 대학이 스스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한다. 대학생태계의 개념으로 관련 주체들의 기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III. 국내 대학의 핵심역량의 도입 및 활용현황

#### 1. 핵심역량 반영의 흐름

국내 대학들에서 역량을 수용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적 목표로 삼기 시작한 지는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특히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들을 통해 대학에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대학별로 역량교육이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 교육체계에의 반영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외적 요인에 의해 구분을 하여 3년씩 단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준비, 도입, 확산, 발전의 단계로 구분한 것은 대외평가나 교육지원 사업들의 계획에 맞물려 이에 대학들이 적극 대응하면서 유사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단계를 구분한 것이다. 즉, 국내 대학

에서 역량의 강화를 위해 교육적 목표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시기를 변화의 축에 근거하여 구분한 단계로 명확한 구분 및 전환이 있었다기보다 편의로 구분한 것이며, 대학별로 핵심역량을 교육적으로 연계하는데 있어서는 그 성숙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참고해야 한다.

먼저 준비기의 경우에는 국내에 역량의 중요성과 역량중심교육이 시도되는 초창기의 시기로 소수의 대학에서 선도적인 역량교육을 실현하는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ACE사업 등의 지원금을 통해 역량교육실현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교과개발, 역량진단도구개발, 역량진단시스템 개발 등의 자원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 반영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도입기부터이다. 실제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입학정원을 조정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대학구조개혁(이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기조로 단계별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국내 대학들의 핵심역량 활용현황

	준비기	도입기	확산기	발전기
년도	2009~2011	2012~2014	2015~2017	2018~2020
세대 구분 동인	국내 도입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1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
주요 변화	OECD의 Dececo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프로젝트 결과를 인용하며 국내 소수의 대학이 역량중심 교육을 준비함	구조개혁이라는 대학별 정원조정을 연동하는 대학평가체계가 마련되면서 역량에 대한 교육적 반영에 관심이 높아짐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대학평가 체계에 근거하여 많은 대학들이 전공교육 및 교양교육 목표에 역량을 구체적으로 반영함	역량수준에 대한 다양한 결과와 구성원의견 등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편에 핵심역량을 면밀하게 반영하고, 역량을 검증함

	준비기	도입기	확산기	발전기
년도	2009~2011	2012~2014	2015~2017	2018~2020
성과 예시	소수의 대학에서 핵심역량설정, 재정지원사업 (ACE, 교육역량 사업)을 토대로 대학 자체의 역량진단도구 개발, 직업능력 개발원의 대학생 역량진단 도구활용(K-CESA)	핵심역량과 교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과정의 반영, 역량교과 운영, 다수의 대학에서 역량진단도구를 개발하여 활용,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역량 활용	전공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학생별 역량수준을 측정하고 관리	역량강화의 수준을 확인하고 교육과정개편에 활용, 미래역량과 대학의 비전에 비추어 핵심역량을 재검증하거나 재설정

## 2. 대학의 핵심역량 연계와 활용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핵심역량을 교육에 연계하기 위해 시도하는 노력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조직의 교육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심역량연계에 대한 검증된 체계나 절차 등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몇 개의 대학의 사례를 토대로 주로 핵심역량 연계에 관련된 행위를 제시하였다. 대학들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 핵심역량을 교육에 반영해왔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다.

### 1) 핵심역량의 설정

가장 먼저 대학의 인재상, 교육목표, 비전에 따라 대학별 핵심역량을 설정한다. 대부분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 기초역량들 중에 선택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별로 비슷한 역량을 포함하지만 자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역량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대학별로 설정한 핵심역량의 예시이다.

〈표 2〉 대학별 핵심역량 설정 현황

대학	핵심역량
경북대학교	창의, 융합, 비판, 탐색, 소통, 책임
연세대학교	도전, 선도, 창의, 혁신, 공존, 헌신
순천향대학교	창의, 열정, 존중, 배려, 정도, 공헌
한양대학교	창의, 소통, 도전, 나눔
한국외국어대학교	자기주도적 학습, 지식, 정보, 기술 활용, 세계시민, 의사소통, 창의, 혁신, 대인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지식탐구, 창의융합, 문화예술, 공존공감, 세계시민
세종대학교	논리, 비판사고, 창의융합 사고, 자기관리, 문제해결, 소통, 글로벌, 공동체 의식
동국대학교	창의융합, 정보기술활용,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기개발 및 관리, 글로벌
용인대학교	소통, 협업, 정직, 책임의식, 창의, 문제해결, 융합적 사고, 세계시민, 글로벌 의식, 리더십
동아대학교	인성, 소통, 창의, 전문성, 도전, 글로벌
홍익대학교	종합적 사고, 소통, 창조적 문제해결, 학제간 융합, 글로벌 문화, 봉사 및 윤리

## 2)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연결

대학들은 핵심역량을 교육을 통해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서 설정한 핵심역량을 교육목표에 포함시켜 교과단위에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전공 교과 및 교양교과별로 대학의 핵심역량군 또는 개별역량 중 어느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교수자가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핵심역량 자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직접 강화시키기 위한 교과를 개설하거나 교양필수교과에서 교과목 명부터 핵심역량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핵심

역량을 교과목 명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어 운영 중인 교양필수 교과들이 존재한다. 특히, 역량교육이 시작되던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역량개발’이라는 교과목명을 가진 교양필수를 2개 교과목 운영함으로써 대학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들을 재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수업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를 6년간 진행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비판적사고와 토론’,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진로탐색과 역량개발’ 등의 역량을 직접 교과목 명에 반영한 교과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과뿐 아니라 교과와 직접 연계된 비교과프로그램에도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실제 해당 비교과가 핵심역량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방향을 가지고 운영하고, 비교과 운영 후에 그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 대학도 있다. 교과와 비교과 단위에서 핵심역량과 연계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과정 단위 뿐 아니라, 학생 개인단위에서 핵심역량을 어떻게 균형있게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핵심역량강화 수준 또는 교육효과 점검

일반적으로 강의평가 시에 해당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강생들에게 물어서 수업자체를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학 자체의 핵심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실제 재학생들의 역량의 수준이나 강화정도를 검증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대학생 수준에서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특정대학에서 개발한 뒤 매년 재학생들을 샘플링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대학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단도구를 제공하고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진단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검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량적인 비교나 성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 4) 핵심역량설정에 대한 검증 또는 수정

설정된 핵심역량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총장(집행부)의 새로운 비전설정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의 목표 등이 변경되면서 재설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학의 핵심역량이 잘 설정되었는지를 구성원의 의견 또는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게 되는데 핵심역량을 설정할 때 추진했던 절차나 논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때 대학의 비전이 변경되거나 사회의 변화나 대학의 특성화방향에 따라 핵심역량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재편할 수 있다. 또는 일부 핵심역량의 개념을 재정의하거나 핵심역량간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대학의 핵심역량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핵심역량 교육적 연계의 단계

	핵심역량 반영 내용	방법
1단계	대학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 설정	대학의 설립취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에서 해당 재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설정함
2단계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의 연계	교과단위에서 교과별로 핵심역량 중에 일부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과인지를 선택하도록 함 교과 뿐 아니라 비교과에도 연계하여 전체 학생단위에서 핵심역량별로 특화시킨 역량과 핵심역량별 균형 등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3단계	핵심역량강화 수준 또는 교육효과 점검	강의평가 시에 해당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강생들에게 물어서 수업자체를 평가하도록 함 대학 자체의 핵심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또는 대외기관의 진단도구를 활용(타대학, 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하여 수준 파악

	핵심역량 반영 내용	방법
4단계	핵심역량설정에 대한 검증 또는 수정	교육효과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거나, 대학의 비전과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역량을 재설정하거나 검증할 수 있음

#### IV.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의 준비

대학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 등에서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교양교육을 통한 핵심역량강화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여겨진다. 그동안 대학이 핵심역량을 교양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더 면밀하게 교육적 성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양교육 측면에서 핵심역량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교양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

교과수준에서 핵심역량을 연계하였다면, 더 나아가 교양교육과정 자체를 핵심역량 기준으로 교양이수체계나 교양영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 교양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역량에 치우친 교양교과들만 개설되거나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영역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개별 교과들이 추구해야 할 핵심역량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균형있게 핵심역량 연계 교과를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대학연합은 교양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대학이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기

본적인 학문적 소양과 사회적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쿠티타운 대학은 학문적 소양, 실용적 기술의 함양과 함께 학생들에게 학문에 대한 시야를 넓혀 사회문화와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개인적·사회적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교양과목을 개편하였다. 그러면서 공통교양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네 가지의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제별 역량 코스(Competencies Across the Curriculum)이며, 7가지의 핵심역량을 내세웠다. 이는 교양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개편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쿠티타운대학의 경우에는 전공이수조건에 부합하는 핵심역량 이수조건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8)</sup>

## 2. 교양교과와 핵심역량의 연계성 파악

현재 교과 운영에 대한 평가는 주로 강의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느끼는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강의의 수준이나 성과를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나 핵심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교과가 설정된 핵심역량의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 이 자료를 교과의 성과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일부대학의 강의평가 문항 내에 개별 교과에서 선택한 개별 역량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는지, 해당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추가질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교과단위에서는 핵심역량과 교과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의 연계성을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교과에 대한 핵심역량연계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교과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교과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또는 해당 교과가 더욱 적합한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변경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실제 핵심역량을 고르게 강화시킬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을 제공

8) 최상덕·서영인·황은희 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 생태계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신규교과개설을 공모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 3. 교양교과 운영방식의 개편

호주국립대학에서는 기존의 형식적(formal) 구조적(structured) 교육방법을 탈피하고, 비형식적(informal) 역량 습득 방법을 제시하면서 형식적인 틀을 벗어난 형태로 다양하게 역량을 습득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sup>9)</sup> 또한 핵심역량에 관련된 한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교수의 강의 중심 수업을 축소하는 대신 토론 및 세미나형 수업의 확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구성하고 협업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많은 양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생각의 소재나 문제를 던져줌으로써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4. 교양교과에서의 성취도를 핵심역량 중심으로 평가

지식과 기술을 역량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 태도와 가치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평가 모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21세기 핵심역량 중 일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학년별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는데,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의 개정을 통해 평가에 핵심역량의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핵심역량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기반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시회나 포트폴리오, 발전에 대한 평가서 등을 활

9) 최상덕·서영인·황은희 외, 앞의 책.

용하기도 한다. 이때 교수는 적극적인 중재자(moderator) 또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 싱가포르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을 중심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도입뿐 아니라, 임상역량 평가로 전환하는 등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10)</sup>

이때,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 대신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하거나, 평가 주체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교수자가 아닌 현장 실무자 혹은 전문가의 평가가 도입될 필요도 있다.

## 5. 재학생 역량수준에 대한 자료의 다면적 활용

구체적으로 대학은 축적한 역량진단의 결과 및 역량강화수준을 교과별로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학생별 학사데이터와 연계한 총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별 역량진단의 결과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결과를 연계하여 파악하거나 역량수준에 대한 결과와 학생의 최종 대학수학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결과 등을 연계하여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 6. 핵심역량을 학제에 다양하게 활용

핵심역량에 대한 이수조건을 졸업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핵심역량 인증제나 핵심역량 졸업인증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 스스로 핵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발적이면서도 인센티브 기반의 체계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핵심역량 별로 연계된 교과를 몇 개 이상 들었는지, 해당 역량이 연결되어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몇 개 이상 들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핵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10) 최상덕·서영인·황은희 외, 앞의 책.

모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량중심의 교육으로 선도적인 시드니 대학은 수업을 통해 핵심역량을 충족시키고 학습자들의 역량개발 정도를 평가하는 시도를 하였다.<sup>11)</sup> 즉, 교수가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핵심역량들을 익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국립대학도 핵심역량 학습방법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12)</sup> 이는 국내 대학에도 도입되어 학생포트폴리오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교수들이 개별 신규교과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에도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개별 학생들의 성취를 교과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다.

## V. 결 론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낼 인재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교육보다는 근본적인 살아가는 법, 지적노동을 수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빠르게 바뀌어 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적으로든 개인적 일상에서 성공적이거나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나누는 것도 교양교육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 대학이 설정한 역량들은 그 적합성이나 중요성 등이 주체별로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핵심역량과 인사담당자가 생각하는 지원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 극단의 차이를 보이는데 하면, 한 연구에서는 대학

11) 최상덕·서영인·황은희 외, 앞의 책.

12) 최상덕·서영인·황은희 외, 앞의 책.

학년의 학생들이 취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는 자료에서 큰 차이를 보인 점 등을 확인할수록 대학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타당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육역량,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공간의 확장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다.<sup>13)</sup>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교육에 대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더욱 면밀한 미래사회의 요구와 변화, 역량교육의 구조, 기초역량교육의 현황을 상세히 정리하고 이를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어떻게 역량을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이론적으로 특별히 검증된 체계 등이 아직 부재한 채, 사회적 요구, 교육부의 요구, 대학교육 수요자의 요구 등에 따라 서둘러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기초적인 수준에서 역량의 교육적 연계현황을 짚어보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각 제언의 부분 항목마다 타당한 이론적 근거와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만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더 발전적이면서 구체적인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교육부, 『스마트교육추진전략 실행계획서』, 2011.

## 참고문헌

- 김왕동, 「이젠 대학교육의 창의성이다!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Future Horizon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 교육부, 『스마트교육추진전략 실행계획서』, 2011.
- 교육부, 『기초통계』, 2019.
-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2017.
- 손민호 · 조현영, 「탈기능주의 교육과정 모형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메타포: 역량기반교육과정의 대안적 설계」, 『교육과정연구』, 32(2), 한국교육과정학회, 2016, 141~160쪽.
- 장희선 · 김호현, 「장학생 선발을 위한 미래인재역량 평가도구 개발연구 - 지역사회 미래인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3(3), 한국교육심리학회, 2019, 421~450쪽.
- 최상덕 · 서영인 · 황은희 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2013.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 허영주, 「NCS 직업기초능력의 교양교육과정 도입 전략 탐색」, 『교양교육연구』, 10(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425~462쪽.
- 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5&aid=0002966636>, 2020.1.9.

Abstract

## Efforts of Liberal Arts Education to Strengthen the Core Competence of Universities

**Kim, Hyeyoung**(Sookmyung Women's University)

**Yu, Jihyun**(Sunmoon University)

**Lee, Sookjeong**(Sookmyung Women's University)

Amid growing calls for strengthening key competencies toward universities for years, universities and professors are still offering various opinions on competence. Controversy continues over pros and cons of competence, but this study wanted to reflect on the need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universities. In other words, as a concern about how universities can accept core competencies, it was proposed to define core competencies more broadly as everyday forces that can create life on their own, not as vocational and job-related abilities.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judge more reasonably on their demand for strengthening their core competencies through liberal arts education. Therefore, if there are professors and universities who want to further strengthen the link between core competence and education, realistic ideas will be needed,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his end, efforts to link the core competencies of Korean universities to educationally were organized step by step and various alternatives were proposed. In other words, it is hoped that the proposal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ore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curriculum will be a small but realistic study in the operation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Key Words] Liberal Arts Curriculum, Competency-based Education, Competency Education, Current Status of Core Competency in University, Core Competency Linkage Strategies

접 수 일 : 2021년 02월 25일  
심사완료 : 2021년 03월 08일  
게재결정 : 2021년 03월 15일

